Daishin 증권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빅테크 자금 흡수, 얇아진 유동성에 투자심리 위축 심화

- 유동성 스트레스 환경 심화, 약해지는 투자심리
- 엔비디아 실적 대기, 연이은 악재에 관망세 강화
- AI 데이터센터 관련 업종 중심으로 섹터 전반 하락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빅테크 자금 흡수, 얇아진 유동성에 투자심리 위축 심화

- 유동성 스트레스 환경 심화, 약해지는 투자심리
- 엔비디아 실적 대기, 연이은 악재에 관망세 강화
- AI 데이터센터 관련 업종 중심으로 섹터 전반 하락

유동성 스트레스 환경 심화, 약해지는 투자심리

– 개인 저가매수세 약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5~6천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코스피는 –3%의 낙폭을 기록. 거래대금은 14조 원으로, 11월 5일 최대 30조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위축.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은 7개월만에 9만달러 선을 하회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 10월 29일 FOMC를 기점으로 유동성 기대감 약화, 고점대비 KOSPI –6.4%, S&P500은 –3.5% 하락

–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신중론으로 전향하며, 12월 금리전망은 동결 전망이 57%로 우세해졌음. 반면, 월러 이사는 인하 주장을 고수하며 연준 내부의 의견충돌이 지속.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증시환경. 유동성 위축 국면은 20일 FOMC 회의록, 12월 1일 QT 종료 및 12월 10일 FOMC를 거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

엔비디아 실적 대기, 연이은 악재에 관망세 강화

– 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 버블 논란 지속, 연이은 부정적 이슈에 시장은 실적발표에 앞서 관망 심리가 우세

전일 아마존의 15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 심화. 이미 오라클(9/24, $180억), 메타(10/30, $300억), 알파벳(11/6, $250억) 채권 발행.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차입은 각 기업들의 AI 자본지출 부담과, 주주환원 축소우려를 넘어 금융시장의 유동성 흡수와 회사채 조달금리 상승 등 불안 요인을 복합적으로 자극하고 있음. 최근 마이클 버리와,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매도 포지션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도했다는 13F 공시 또한 AI 투자심리를 약화

AI 데이터센터 관련 업종 중심으로 섹터 전반 하락

– AI 버블 우려에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업종 전반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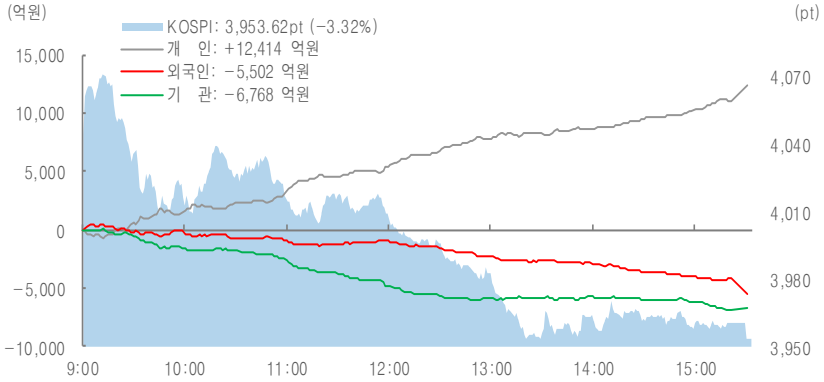
반도체: SK하이닉스(–5.9%), 삼성전자(–2.8%), 원익홀딩스(–14.6%)

원자력/전력기기: 두산에너빌리티(–4.3%), 효성중공업(–4.1%)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4.3%), 삼성SDI(–4.9%), SK이노베이션(–5.2%)

– **증권**: 증시조정, 금리인하 기대약화에 따른 평가차손 우려로 매도 심리 강화 미래에셋증권(–5.0%), 한국금융지주(–5.6%), 키움증권(–6.6%)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